



변복우 '섬진강 숨결' ↑



김동환 '구장군폭포가 흐르는 전경' ↑

섬진강과 강천산의 아름다움 캔버스로

순창군이 제3회 순창군 섬진강 자연생태 관광지 전국사생공모전 입상작을 발표했다.

제3회 순창군 섬진강 자연생태 관광지 전국사생공모전은 순창군이 주관했으며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순창의 섬진강, 강천산 등 자연공명과 문화자원을 화폭에 담아 간직하고, 미술인 관광객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작품을 접수받아 전문 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번에 입상작을 발표했다.

심사결과 윤종득(서울)씨의 '구장군 폭포'가 영예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박명옥(서울)씨의 '항수', 우수상에는 김영선(청주시)씨의 '강천홍엽', 변복우(전주시)의 '섬진강-숨결', 김동환(광명시)씨의 '구장군 폭포가 흐르는 전경'이 각각 선정됐다.

또 박병대(전주시)씨의 '섬진강', 황금화(순창군)씨의 '섬진강의 황금 들녘'이 각각 특별상으로 선정되는 등 특선 5명과 입선 10명을 포함 총 22명을 입상자로 선정 발표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부장관상과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 된다.

학생부는 구현우(광주예술고 1년)의 '강천산

순창군, 사생공모전 입상작 발표
일반부 22명 · 학생부 59명 입상

의 가을'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으며 이해인(경기동남고 2년)의 '벚꽃비', 김예진(경기죽전중 3년)의 '강천산의 색깔', 조문서(인천동명초 4년)의 '강천산 가을'이 각각 금상으로 입태용(순창제일고 1년)의 '벚꽃비', 양효서(광주예술고 1년)의 '가을', 박진석(전주효성중 2년)의 '최영장군과 애마의 전설', 강현아(순창여중 2년)의 '강천산 계곡', 이해담(완주봉성초 6년)의 '소원을 빌며', 주정은(순창육전초 3년)의 '소풍 가는 날'이 각각 은상으로 선정 되는 등 각각 20명과 입선20명 포함 총 59명이 입상자로 선정되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50만원의 상금이 수여 된다.



김영선 '강천홍엽' ↑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철량 화백은 "해를 거듭할수록 출품작들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고 참가자도 전북, 전남지역은 물론이고 서울, 경기도, 충청도, 부산 등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어 본 시상대회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미술인 한 사람으로서 순창에서 이런 좋은 공모전을 매년 개최해서 전국의 미술인 주변 확대는 물론이고 순창의 문화관광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황숙주 군수님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의 자세한 심사 결과는 순창군 홈페이지(www.sunchang.go.kr)와 순창공립육원 홈페이지(www.artsunchang.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겨울방학, 신기한 곤충보러 떠나요

23일부터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서 '곤충아트 특별전'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곤충아트 특별전'을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운영한다.

산림청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은 곤충과 아트를 주제로 하여 '곤충아트체험관', '곤충생태관', '곤충놀이터', '세계희귀곤충표본관'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곤충아트체험관'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버터플라이워터, 곤충디오라마, 곤충정크아트, 만화경수조 등 다양한 곤충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만화경수조는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던 이색적인 전시수조로 여럿을 적 가지고 놀던 만화경(Kaleidoscope)을 응용하여 곤충을 더욱 신비롭게 관찰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곤충생태관'에는 겨울에 쉽게 접할 수 없는 장수풍뎠이, 왕사슴벌레, 무당벌레,

물방개와 곤충의 친척인 코코넛크림, 타란 툴라독거미, 자이언트블루전갈 등 50여종 1000여 마리의 다양한 국내곤충과 희귀절지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

'세계희귀곤충표본관'에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곤충 해라클레스장수풍뎠이, 키톤장수풍뎠이, 뮤엘러리사슴벌레, 버드왕나비, 나뭇잎대벌레 등 100종 500여 마리의 세계희귀곤충을 표본으로 관찰할 수 있다.

'곤충놀이터'는 각종 수서곤충과 수서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터치풀과 장수풍뎠이와 사슴벌레를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딱정벌레체험존, 곤충뉴스터, 물방개수영시합, 장수풍뎠이달리기시합 등 다양한 곤충체험이 마련되어 아이들의 생태놀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곤충아트 특별전'은 전 연령대가 입장가능하고 전시관 입장객은 추가비용 없이 관람할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신국역총서 9' 발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이승우)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관련 중국 관계자들의 기록이 담긴 '동정일기(東征日記)', '이홍장전집(李鴻章全集)',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季中日韓關係史料)' 일부를 번역해, 이를 원문과 함께 엮은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9'를 발간했다.

이홍장전집은 1894년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국(淸國)에서 파병된 총병(總兵) 섭사성(1836~1900)이 쓴 종군일기이다.

이홍장전집은 당시 청(淸)의 북양통상대신(北洋通商大臣)이었던 이홍장의 공적인 궤적을 엮은 것으로, 대리자 원세개(袁世凱)가 동학농민군 및 조선 정부의 동태를 보고하고자 이홍장과 주고받은 내용의 문서이다.

청계중일한관계사료는 청대(淸代) 총리각국사무아문 등의 교섭 안건을 정리하여 모은 자료집이다. 이 세 자료는 1894년 당시 조선 및 이를 둘러싼 청 일본과의 관계 등을 알려주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귀중 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기념재단 관계자는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는 1894년 당시 중국 관계자들의 기록을 모아 새롭게 발간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2곳 지정

천도교 임실교당 · 옥정암지 마애석불 좌상

임실군은 '천도교 임실교당', '옥정암지 마애석불 좌상'을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5호와 제6호로 각각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진두 부군수, 최성미 임실문화원장, 송화섭 중앙대학교수,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 남해경 전북대학교수, 박장근 군산대학교수, 김진돈 전라금석문화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향토문화유산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천도교 임실교당'은 지난 1930년대 임실을 성가리에 종교시설로 건축된 것으로 본채, 문간채, 바깥채로 구성되어 있다.

본채는 좌우대칭으로 'ㄱ'자 형태이며 각각 전퇴와 후퇴를 뒀으며 초창기 천주교와 기독교 전래과정에서 남녀 구별을 위해 세웠던 '김계 원령 금산교회', '원주군 퇴재성당' 등과 유사하다.

심의위원회는 "천도교 종교건물로서 완연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옛 건물은 드물다"며 "천도교가 1919년 임실지역은 물론 3·1 만세운동을 주도하는데 기여한 만큼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을 위해 추가조사 및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기념사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옥정암지 마애석불 좌상'은 오수면 주천리 뒷산인 노산(龍山, 540m)에 위치했으며 가로 30m, 높이 10m의 바위에 선형으로 새겨져 있다.

전체높이가 6.43m에 이르는 거대 석불로 불개가 높고 왼손은 무릎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은 무릎아래를 향하고 있는 항마촉지인 수인을 하고 있다. /임실=진종영 기자



천도교 임실교당



정암지 마애석불 좌상

근대서화, 군산에서 꽃 피우다

'황씨 형제'展 근대역사박물관서

군산근대역사박물관(관장 문세환)은 2017년 마지막 기획전으로 '근대기 서화가 황씨 형제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21일부터 문을 여는 이번 전시는 근대서화계를 대표하는 '황씨 사형제'가 군산에서 펼쳤던 활동과 작품세계를 조명하여, 수탈과 저항의 도시 군산의 또 다른 일면이었던 다양한 근대예술의 산실로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기획되었다.

전시공간은 본 전시인 '근대기 서화가 황씨 형제展'과 체험공간인 '황씨 형제의 화실' 두 곳으로 구성했다.

전시는 총 5부로 진행되며 근대예술문화가 꽃 피웠던 군산과 자신들의 작품세계를 펼칠 장소로 군산을 선택한 황씨 형제의 다양한 활동을 60여점의 작품 및 자료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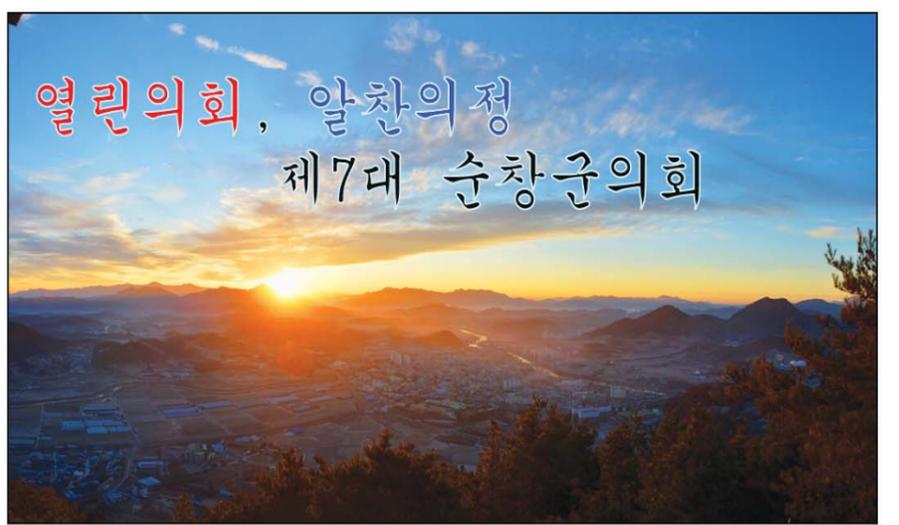
선보인다.

특히 일반 서화전시와는 다르게 당시 사진 및 신문자료, 일성록 등의 전시유물을 통해 황씨 형제의 활동 당시 상황을 사실감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전시장 도입공간에 배치된 '황씨 형제의 화실'은 전시와 연계된 체험공간으로 기획되었다. 호랑이도, 산수도, 인산도 등 다양한 황씨 형제의 작품을 체험으로 접할 수 있으며, 황씨 형제의 인장(도장), 황씨 형제에게 보내는 편지 등 각종 연계활동이 함께 마련되어 우리 서화를 쉽고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박물관 관계자는 "황씨 형제의 활동과 작품을 통해 근대화문화가 꽃피웠던 군산 화단이 갖는 미술사적 의미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제 7대 순창군의의회 운영 방침

- ▶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책임있는 의회
- ▶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회
- ▶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 ▶ 미래를 내다보며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순창군의의회는 15만 내외 군민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고견 바랍니다.

(문의 : 650-1043)



순창군의의회

56039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http://www.sunchangcouncil.go.kr>